박원자의 母情佛心 35 세상의 모든 이들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나의 어머니는 결단하면 바로 실행하라는 지론을 갖고 사셨다. 그 추진력으로 마을과 사찰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셨다. 어머니가 평소 바라던 대로 다음 생에는 사업가로 살아가시길 기원한다. 나의 어머니로 계셨던 인연에 감사하며.

“삶의 수많은 길에서 다시 만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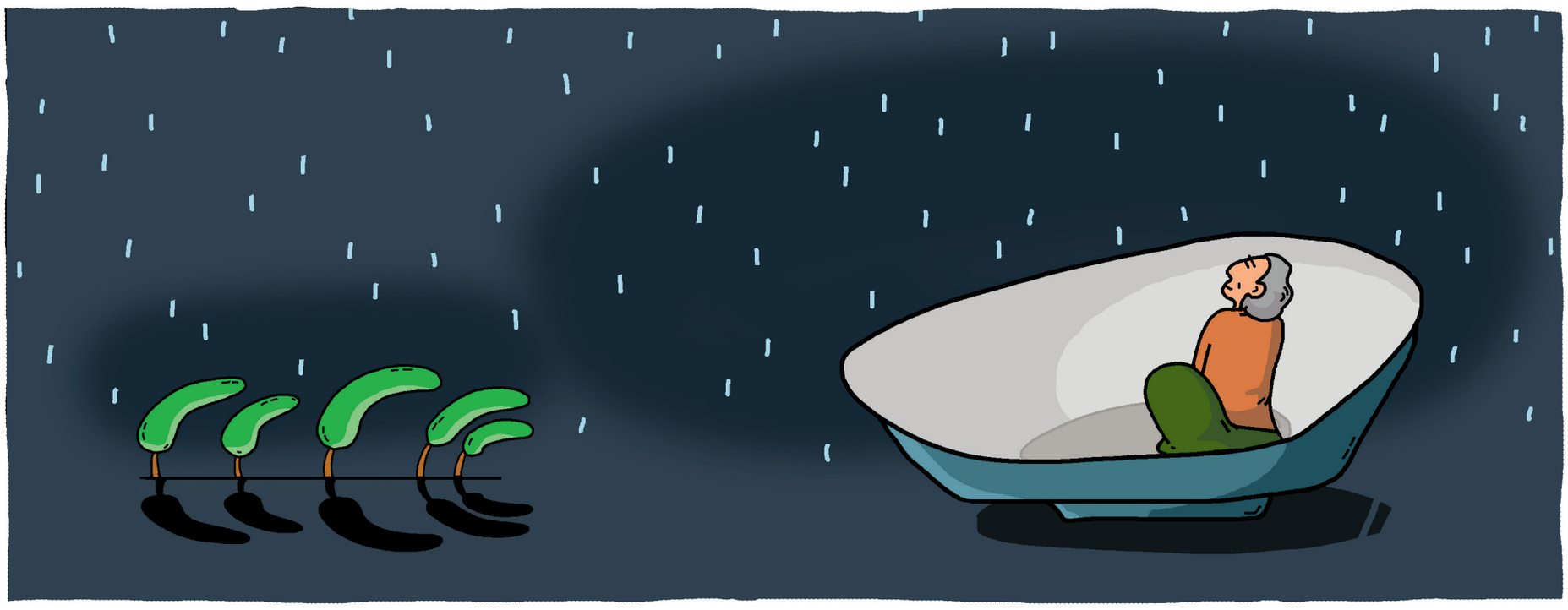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정불심’ 연재를 시작한 게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다. 이제 35회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그동안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8년 전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늘 죄송한 마음으로 그리웠던 어머니. 마지막 회는 세상의 보통 딸들을 대신해서 지혜롭고 불심이 깊으셨던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쓴다.

며칠 전 직장에 다니는 작은 딸아이가 카카오톡을 보내왔다. 이제 막 시작한 마음공부 강의를 듣고 다녀오면서 보낸 짧은 문자내용은 이렇다.

‘오늘 강의 듣다 눈물이 났어. 벅차오름을 느꼈어. 기적 같은 강의야. 무슨 복을 타고 난 건지 모르겠어.’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잔잔한 기쁨이 일었다. 진정한 도반이 되었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엄마는 자식이 좋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더구나 마음공부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의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 같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와 남편이 매일 경전을 읽으면서 절을 할 때 ‘두 사람 모습이 보기 좋구나’ 하며 흐뭇해하셨던 기억이 난다. 내가 수행자들에 대한 글을 쓰고 책을 낼 때도 무척 기뻐하셨다. 노인정의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길러보니 어머니의 심정을 알 것 같다. 자식이 마음 편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아쉬움이 많았던 어머니는 당신보다 많이 공부한 자식들을 보며 뿌듯하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8년 전, 89세에 돌아가셨는데 여든이 넘어서부터는 여기저기 편찮은 데가 많았다. 병원 출입도 잦았다. 그러다보니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그 즈음 내가 물었다. “엄마, 다시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망설임 없이 바로 답하셨다. “그땐 많이 배워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열아홉에 시집와 아들 셋, 딸 둘을 낳고 농사를 짓던 아버지를 도와 농부의 아내로 사셨던 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아쉬운 게 많았던 것 같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5일장이 서던 읍내에 나간 적이 많다.

어느 날 어머니는 화려한 옷감을 쌓아놓은 포목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말씀했다. “나도 이런 거 하면 잘 했을 텐데.”

아마 그랬으면 정말 큰 사업가가 되셨을 것이다. 옷감을 사다가 딸들의 원피스를 만들어 주곤 했는데, 작은 보석 같은 것들을 박아서 어찌나 맵시 있게 만들어 입혔는지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머니의 솜씨에 감탄하고는 했다. 어머니는 만능이었던 것 같다. 농사짓는 그 바쁜 와중에도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어 먹고, 장을 담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가 담근 청국장 맛을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다. 텃밭에 나가 배추를 뽑아다 끓인 된장국, 잘 삶아진 시금치나물이며 비름나물 무침은 또 얼마나 맛있었던가.

음식솜씨가 좋다보니 동네 잔칫집에 늘 불려 다니셨다. 또 볏가리를 얼마나 잘 쌓았는지, 우리 집 것은 물론 남의 집 것까지도 쌓아주느라 바빴다. 동네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러 인생사를 털어놓으면 척척 상담을 해주었고, 동네에 싸움이 나면 불려가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 해결을 보곤 하던 어머니였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은 ‘너희 엄마가 동네 변호사 노릇을 하니까 사무실을 하나 차려주어야 한다’ 고 주장하셨다.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영민한 분이었다.

어머니에게 들은 말 가운데 가장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 ‘단결(斷決)에 해라’ 는 말씀이다. 결단을 내렸으면 바로 행동하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신 분이다. 우물쭈물 미루는 법 없이 바로 밀고 나가 행동에 옮기며 살았던 분이다. 그랬기에 소작농이던 가난한 아버지에게 시집와 이미 40대쯤엔 200여 호 되는 동네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절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다. 어머니는 다니는 절에 신도회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불사에 앞장섰다. 퇴락한 시골 절을 새로 짓는 데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권했고 당신도 시주했다. 오랫동안 신도 회장을 맡으면서 어머니가 한 일은 불경공부가 아니었다. 불사를 하는 데 열중하고 절에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다니셨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건 성지순례를 할 때였던 것 같다. 어머니의 부처님은 이름난 전국의 법당에 앉아계신 부처님이었을 테니까, 그곳에서 밤새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인도를 다녀왔을 때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는 어떻더냐?”

두고두고 회한에 젖는다. 어머니를 모시고 인도에 가지 못한 것을. 유행가 가사처럼 영원한 줄 알았다. 어머니가 오래 내 곁에 계실 줄 착각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단결에 하라’ 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과보였다. 그래도 우물쭈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온 자식을 꾸짖지 않았던 어머니, 그래도 너는 배웠으니까, 배워서 부처님 말씀도 잘 아니까 하시고 귀히 여겨주셨던 어머니였다.

> 다시 태어나면 사업가 되고 싶단 母
> ‘결단하면 바로 실행하라’ 평소 지론
> 마을, 사찰 대소사 모두 챙긴 대장부
> ‘내생엔 사업가로 살아가시길’ 기원해
> 내 어머니로 계셨던 인연에 감사하며

어머니의 불교를 보면서 생각해보곤 한다. 그 많은 이론을 알아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많은 것을 몰라도 하나면 분명히 알면 되고 그 하나를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영어 발음이 도저히 안 돼서 수첩 전화번호 난에 슈퍼마켓을 ‘스푸막개’ 로 적어놓고, 안티프라민을 ‘안트푸라미’ 라고 발음하셨던 어머니지만, 그래서 다음 생엔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하신 어머니였지만, 현재가 전부였고 그 현재에 분별없이 무심히 삶 전부를 던지며 사셨던 어머니의 불교가 진짜 불교였다고 생각한다. 뜻은 모르지만 ‘마하반야바라밀’ 을 정성껏 종이에 쓰곤 하셨던 어머니의 신앙이 대학을 나온 나의 불교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째 한 달에 한 번씩 1박2일 정진을 하러 태안의 수행처 묘금륜원에 가고 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멀리 우리가 살았던 동네가 보인다. 평택 평야 너머로 보이는 동네가 보일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 올 1월 어느 토요일, 마침 그곳을 지나는데 도반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내용이었다. 스님의 열반송이라며 함께 보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다. 신산하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스님께서 외친 ‘자유’ 라는 단어가 가슴에 사무쳐 들어왔다. 그날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핑계 삼아 한참 눈물을 쏟았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 몸은 나를 가둘 수 없다.
나는 경계가 없는 생명이다.
나는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
저 넓은 바다와 하늘, 수많은 우주는 다 의식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는 시초부터 자유 그 자체였다.
생사는 오고 가는 출입문일 뿐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숨바꼭질의 놀이일 뿐이다.
그리하여 내 손을 잡고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인사하자.
내일, 어쩌면 그 전에 다시 만날 것이다.
근본자리에서 항상 다시 만날 것이다.
삶의 수많은 길에서 항상 다시 만난다.

–틱낫한 스님

그 후에도 여러 번 스님의 열반송을 읽었다. 음미할수록 언젠가 내가 세상과 작별하게 될 때 내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처럼 느껴지곤 한다. 나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삶의 수많은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경계 없는 생명이니까. 안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심코 곁에 있던 큰딸에게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려나’ 하고 묻자 딸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지금 파리에서 태어나서 계실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에 옷을 잘 입으신 멋쟁이셨으니까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실 거야.”

엄마를 위로한 말이었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다. 많이 공부해서 다음 생엔 사업가가 되고 싶다던 꿈을 이루시길 기도한다. 나의 어머니로 계셨던 인연에 감사하며. 〈끝〉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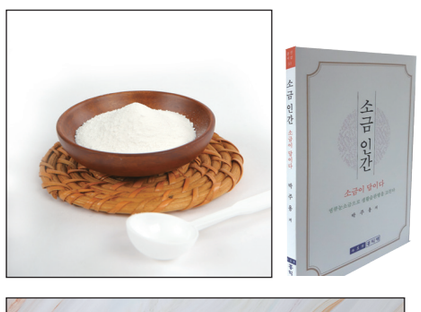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